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조동신문

튼튼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8호 [루체 제23130호] 주제99 (2010)년 6월 27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공산당 산동성위원회와 산동성인민정부, 라オス
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가 선물을 보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산동성 천선대 표단 단장인 중국공산당 산동성위원회 비서장 왕민이 25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카만 셀리담과 라오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세계적인 대축전으로 기념하자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회 제10차회의 진행, 결정서 채택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회 제10차회의가 5일 이탈리아로 마에서 진행되었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서기장, 리사를 그리고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과 사무국장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기간 사업을 총括하고 앞으로의 과업을 토의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면서 유럽 지역 주체사상연구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적극화할 대 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 주체적인 새 사회건설의 승리적전진의 틈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향유질로,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세계 전보적인 인류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을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학제적으로 정립하고 인간중심의 새 사회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끝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자 세계 주류위업에 대한 행운을 바친신 인류의 위대한 스승, 영원한 태양이시다.

포인트 시대적사조로서의 주체사

상의 견인력과 의의는 역사의 전진과 더불어 더욱 커가고 있으며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2012년에 맞이하게 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인류사적경계로 기념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끝길이 기념하며 대한 아시아 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회 제13차회의 결정과 주체사상연구제12차 회의 결의를 적극 지지와 환영하였다.

회의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4월 15일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으로 맞이하려는 회의 참가자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 결정한다.

1) 우리는 자주주체를 개척해 나가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주성

을 유린하는 세계적 도전들을 짓부

시고 자주적이이고 평화로운 유통을

세계적 도전에서 자주의 기

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2) 우리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

된 환경,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주주체사상연구회를 비롯한 지

역안의 각급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대열을 확대 강화하고 활동에서 편

계와 협력을 실현하며 공동보조를

이룩해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

하기 위한 투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세계적인 대축전으로 기념하는데 특

색있게 기여할 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할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며

그 가치 따라 나아갈 때 인민대중의

나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날로, 보다 큰 주체사상연구보급활

동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탄생 100돐을

영원한 사랑의 미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감정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주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버이장군님을 강성대국승리의 단

상에 높이 모실 환희의 그날을 향하여 신심에 넘쳐 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영원한 우리 어머님에 대한 사무처는 그리움을 더더욱 불러일으켜 주는 6월.

위대한 김일성同志의 천만년미래를 장창히 열어놓으셨으며 성스러운 선군혁명워파며 불여 불멸할 업적을 살아올리신 영원한 조선의 어머님!

천만줄기 흐름도 한풀에 안아 혁명이라는 용모한 대하로 사물처흐르게 한 그 크나큰 포옹의 힘으로 만민의 짐장을 매혹시키신 영원한 우리 어머님의 한없이 인자하시고 친근하신 모습 세월이 흐른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농속수련지 하지공작원으로서 명성을 떨치시던 항일의 전설적 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에서 볼수령을 을 이룬 혁명적 양성의 계절, 선군혁명사에 길이 빛날 풀꽃은 6월,

영원한 우리 어머님, 그 이름 조용히 불려보며 어머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추억의 노를 저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격랑을 억제 할수 없다.

위대한 혁명 생애의 나날 어버이 수령님의 간동을 끌없이 자아내신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 정숙여네.

그이는 온갖 초목을 한풀에 안아 키워주는 대지와 같은 도량으로 인민들과 전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인정미의 최고회심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드립게 회고하신바 같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삶, 바로 그것이 김정숙동지의 시였고 그이께서 걸어오신 인생길이었다.

대단히 담하고 이악하면서도 마음씨가 무척 꿈과 동정심이 날달리 강하신것이 김정숙동지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첫인상이시였다.

인간에 대한 생애를 시작하였고 동지애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여 비범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혁명동지 정숙여네.

그이께서 위대한 한평생을 바쳐 수놓으신 인간과 동지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민생단』으로 척형당하게 된 당사는 이를 일찍부터 너성공청원으로 일을 잘하는 최희숙동지였다.

유구 생활이 평난하는 『불평』이 척형당하게 된 이유였다.

최희숙동지가 『민생단』 일수 없고 확인하면서도 『민생단』으로 척형당하게 된 두 누구도 감히 막아나서지 못하였다.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이였고 그가 걸어온 인생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주었다.

일생동안 해놓으신 그 모든것이

다 동지들을 위한 인민을 위하신 것들이었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김정숙동지!

그의 판념속에는 자기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젊어도 좋고 열어도 좋다. 그러나 동지들이 배고프지 않고 춤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내가 죽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정미의 최고회신이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인생판이었다.

동지들과 공동위업에 대한 헌신, 이것은 김정숙동지의 성격에서 헤이였고 그이의 천부적인 인간적 특성이였다.

낮이나 밤이나 쉼없이 설레이며 빨찌산의 그 이야기 후손만대로 전하는 백두림의 전장들은 항일 혁명이 낳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 김정숙동지의 빛날을 불멸할 그 업적을 노래하는 혁사의 증경자이다.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먹을것이 차지되면 자기보다 체통이 크거나 나여린 대원들에게 떨어지거나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 남대원들의 페진 웃이나 신발을 기워주군 하시면서 김정숙동지의 모습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김정숙동지께서 마안산밀영에 계실 때에도 쪽경분자들이 『민생단』 벽지를 함부로 불일수 없는 유일한 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자들의 그릇된 처사를 단죄하는 심정으로 대원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신 그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만원정을 하시는 기회를 이용하여 혁명의 원수들이 멀린 만 『민생단』 풋동이에 올라온 동물을 훔쳤던 때에 능지영에서 유태교를 치르던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 같이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신 분도 그이이였다.

사실이 드러나는 날에는 자신께서도 『민생단』으로 척형당해야 하며 스산한 때가 아니었던가.

벌써 이 미전에 부암지구에서 한 목숨 내대고 최숙동지 를 구원해주신 분도 김정숙동지이다.

그이께서 위대한 한평생을 바쳐 수놓으신 인간과 동지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민생단』으로 충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의 앞길에 영원한 데리고 옮겨져 있다.

그 고결한 한성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고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두고 두고 및지 못한 분은 어버이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삶, 그것이 바로

겠는가. 만일 우리가 혁명에 충실했던 동무들을 『민생단』으로 물아죽인다면 좋아할 것은 적밖에 없다!

군중이 일제히 호응해나섰다. 그후 적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

도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라고 소리높이 웨침으로써 적들의 간당을 서늘하게 하고 혁명가의 상징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최희숙동지.

그날의 김정숙동지의 열화같은 인간에, 동지들을 떠나서 혁명가로 자신의 최희숙동지의 영생을 상상할 수 있으랴.

최희숙동지를 옷호하고 보증하시던 그날처럼 혁생적으로 동지들을 위해 현신하신 김정숙동지.

그이의 혁생적인 동지애에 『감방』 안의 동지들은 끌어죽거나 아죽는 위험으로부터 구원될수 있었다.

적 『토벌대』가 삼도만으로 밀려들던 날 절렬 풍을 죽가마를 머리에 이고 산으로 달려오르신 김정숙동지.

나무도 굽하여 잠시 죽가마를 감히 하여놓았다가 다시 가져가자고 하는 너대원에게 조금만 참자고,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동무들을 끌기지 않을수 있다고 하면서 꿀풀내 산마루까지 죽가마를 이고 달리신 김정숙동지.

아버지 수령님때문에 김정숙동지를 신파대안에서 30리쯤 떨어진 도천리에 파견하신것은 지금으로부터 7 3년전 3월 서강회의 전야였다.

자주색자고리에 곤색새루치마, 목이 긴 버선, 그것이 도천리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김정숙동지의 지하공작활동에서 분수령을 이룬다.

신파통로를 개최하시여 신파팡got

롯조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무수히 내오신것은 김정숙동지의 지하공

작활동에서의 첫걸음이었다.

나는 그날처럼 풍을 품은 내대여 하는 전우적들의 군사요충지대의 하나로서 경계가 이를 데없이 삼엄하게 되었다.

동사일로 바쁘게 보내시면서도 밤이면 나들이를 다니시며 마을사람들과 얼굴을 익히시고 얼굴을 익히신 사람들은 이를 익혀두고 복청질이요, 간접질이요, 흥장질이요 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사생결단의 정신과 투지로써 이 사실을 아시면서 몸시 가슴아파하실것입니다. 이제 장군님께서 이 엄중한 사태를 바로잡으실것입니다. 그러니 신념을 잊지 말고 꿀까지 혁명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 『민생단』에 김정숙동지의 정신과 장군님의 힘에 힘입어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척형당하게 된 후에는 그이에게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남들이면 벌치 않을 일로 어길이 모든것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공정으로 보였다. 마치 교원들이 학급을 운영해보려고 청탁으로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예일로부터 척형당하게 된 그이에게 그 빌미를 둘것이었다.

물방울…

어머님의 지하활동과 관련되어 있던 사적지를 하나하나 그려보는 우

리의 가슴에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

날 신파방을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숨어

있던 고장에

온기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는

여기

온기로

들어온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0년이 되었다. 역사자는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조선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만지며의 죄행을 만천하에 날낱이 고발하고 있다.

6. 25~7. 27 만민 공동통제 월간을 맞으며 미제의 조선침략도 발작을 단죄하는 목소리들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높이 울려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벤츠럽게도 조선침략의 책임이 마치도 우리 공화국에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역사는 거울과 같다. 미제가 제 아무리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술책을 써도 전쟁방화자의 죄행과 정체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동안 세밀히 작성한 계획에 따라 리승만과 국군도를 사축하여 동북상생의 내란을 도발하고 우리 조국과 우리 민민을 반대하여 직접 무력간섭을 개시한 그 침략행동을 무엇으로써도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제의 조선침략전쟁도발은 남조선 강점 첫날부터 꾸며졌다.

일찍부터 우리 나라를 아시아와 세계제제를 위한 군사적 교두보로 정한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절반에 대한 지배는 그들이 바라는 전부가 아니었다.

제 2차 세계대전후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펜이 솔리함으로써 세계민주력량이 격히 장성강화되고

있던 국제적 환경은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의 『지정 학적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였다. 미국군사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나는 항상 조선을 무한한 가치가 있는 군사적 전초기지로 인정하였다. 조선의 전지역을 정복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쏘베트씨비리와 남방을 편결하는 유일한 보급선을 산산이 짓부실수 있을것이며... 율라지보스포크와 싱카포르사이의 전지역을 지배 할수 있을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우리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아무데도 없게 될것이다.』라고 벌였다.

미제가 조선전쟁도발에 결실한 리해판계를 가진 것은 저들이 짐작한 공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업들이 무리로 파사하고 수백만명의 실업자대군이 생겨났다. 이것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정치적 위기를 산생시켰다.

그로부터의 출발로 조선전쟁에서 찾은 미국은 전쟁을 통하여 군수독립체제에 『활력을』을 부어주고 위기에서 차기 경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탄식하였다.

조선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쳤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피리들에게 전쟁열을 고취하는데 신경을 썼다.

1949년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였던 무효는 피리 『국방부』장관과 피리 『내무부』장관을 불러다놓고 당시들뒤에는 미국이 있으니 용기

를 내려 북조선에 대한 공격의 시기 가 하루라도 속히 오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북침 바람을 불어넣었다.

미제는 남조선피리군을 현대적 전쟁수단들로 무장시켜 전쟁대포밥으로서의 능력을 키우는데도 많은 품

질우함으로써 산지식을 얻을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었다.

미제는 『시험전쟁』을 통하여 저들에게 유리한 전술적지대를 확보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 할것을 획책하였다.

그들은 피리들을 전쟁에 부추기면서 구입본군 참모성원들까지

동안에만 남조선피리군에 14만 5000여정의 보총, 2000여문의 포, 4900여대의 차량, 79척의 합선 등을 넘겨주었다.

미제의 북침계획에 따라 남조선피리군은 38° 선지역에 공격형으로 배치되었으며 전쟁수행에 필요 한 일체 군수물자와 장비들도 집결되었다.

미제는 미국제 무기로 장비되고 훈련을 받은 남조선피리군의 『팀전태서』를 결집하고 『설전능력』을 키우기 위해 1947년부터 38° 선이 복지역에 대한 부단한 무장도발을 감행하여 예비적인 『시험전쟁』을 벌리게 하였다.

결과 38° 선지역에서 강행된 남조선피리군의 각종 무장도발행위들은 1949년 6월 17일에 말았다.

1949년 7월 남조선강경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피리군부우두머리들에게 『금번 단행 할 북침은 멀지 않아 일으킬 내전을 위한 좋은 시험대이며... 적과 적을

시하였다으며 다음날에는 피리 『국회』에 나타나 『미국은 남조선이 공산주의의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협약하면서 피리를 전쟁도발에 부추겼다.

그후 일본으로 날아간 델레스는 도쿄에서 미국동군사령관 페더, 미국방장관 존슨, 미합동참모본부의 장 브룩스와 마주앉아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전쟁개시날짜는 1950년 6월 25일로 한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그후 미국대통령과 미합동참모본부, 국무성, 국방성 우두머리들의 협의회에서 합의되고 트루먼에 의해 최종적으로 비준되었다.

침략전쟁도발을 앞두고 기만과

위장공세를 벌리는 것은 미제가 쓰는 상투적 수법들 중 하나이다.

조선전쟁도발방법과 절차, 남자까지 확정한 미제는 전쟁도발에서 불의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 죄워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쟁전야에 전제 없는 기만, 위장공세를 매틈에 벌리였다.

조선전쟁도발을 주도한 트루먼은 1950년 6월 24일 가족과 함께 워싱턴에 수장을 떠나 주말휴식차로 미주리주의 자기 고장으로 떠났다.

광고하였으며 미국무장관 주말휴식차로 여행하는 연극을 놀았다.

트루먼의 『특명』을 받고 남조선에 기여들어 38° 선을 시찰한 델레스는 6월 18일 리승만으로 부터는 미국본토로, 참모장 라이트는 일본 도쿄로 여행하는 광대극을 평쳤다.

미국이 짜증 각본에 따라 리승만

피리도당은 1950년 6월 초부터

실시해온 비상계엄령을 6월 24일 0시를 기하여 해제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어용수단들은 남조선군의 3분의 2가 『외출』하였다고 거짓나발을 불어댔다.

그러나 미국동군사령부와 남조선피리부의 우두머리들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다.

마침내 전쟁호전광들이 기다리던 시각은 왔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제와 남조선피리도당은 선전포고도 없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교활한 미제는 미국동군사령부가 남조선피리군 『참모총장』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미제가 감행한 3년간의 조선전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세난을 당하였으며 3천리조국강도는 나무 한 그루, 물 한포기 성한 것 없는 재미미로 변화하였다.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다 갖지 못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오늘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제 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미쳐날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일거일동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불굴의 기상과 승리의 신심에 넘쳐 침략자들을 단배에 처부실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만약 미제가 또다시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을 그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성취하고 암말것이다.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다 갖지 못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미제가 감행한 3년간의 조선전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세난을 당하였으며 3천리조국강도는 나무 한 그루, 물 한포기 성한 것 없는 재미미로 변화하였다.

교활한 미제는 미국동군사령부가 남조선피리군 『참모총장』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다 갖지 못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오늘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제 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미쳐날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일거일동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불굴의 기상과 승리의 신심에 넘쳐 침략자들을 단배에 처부실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만약 미제가 또다시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을 그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성취하고 암말것이다.

서 남 일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

핀란드 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6. 25~7. 27 만민 공동통제 월간을 즐음하여 주체사상 연구 편란드전국위원회가 18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반도에 독창적인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신군정치의 의涵에 의해 오늘 조선인민군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근위병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으로 소동을 더욱 확장하였다.

선군정치는 조선인민이 스스

로 선택한 사회주의를 끌까지 고수하고 나라이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의의 위업에 대한 믿음직한 담보인 동시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한 무기로 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는 자주, 자립, 지위의 원칙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조선인민군은 강성대국건설과 국방력강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고있다.

조선반도는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강력한 조선인민군이 여기에 조선반도에서는 평화와 안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간섭을 보장되고 있다.

선군정치는 조선인민이 스스

로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신군정치의 체계를 확장하여 혁신과 혁명으로 전개되었음을 전하고 있다.